

브는 음상이 퍼져 서라운드 처럼 들립니다. (유튜브에도 있던데, 제가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에 보시기 바랍니다. 세집중 한 집은 틀려 있습니다.

6. 스피커 케이블 길지도 좌우가 같아야 합니다. 앰프와 좌우 스피커 간 거리가 다를 경우 한쪽 잘라 쓰시기도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서 돌돌 말아 놓기도 하는데, 말아 놓으면 코일 역할을 합니다. 코일은 고음을 차폐 시키므로 해상도가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는 길수록 불리 합니다. 너무 길다면 잘라서 사용해야 합니다.

7. 스피커의 단자가 4개인 것은 Bi-wiring (바이와이어링)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음용 두가닥, 저음용 두가닥해서 네가닥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음질이 달라 집니다. 이게 안되면 스피커에 달려 나오는 구리판으로 만든 연결단자는 빼고 점퍼케이블이라도 좋은 걸 쓰셔야 합니다.

8. 스피커 드라이버 유닛은 1-2년에 한번씩 고정나사를 조여 주어야 합니다. 유닛 고정 나사는 진동으로 인해 조금씩 풀어 집니다. 흐리멍덩한 소리가 뚝뚝뚝해 집니다.

9. 스피커 그릴은 벗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릴은 먼지유입이나 외부 데미지를 막는 역할 입니다. 커튼을 치고 음악을 듣는 것 입니다. 어린 아이가 있거나 먼지가 많다면 평소에는 덮으시고, 음감시는 벗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유닛의 먼지는 붓으로 털어 내시면 됩니다. 간혹 가운데 볼록 나온 더스트 캡이 쑥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있는집) 진공 청소기 끝에 스트로우를 (아니면 비슷한 것) 연결해 조심해서 빨아 당기면 나옵니다. 그래도 안나오면 막대모양 글루스틱의 끝을 녹여 붙인후 당기면 나옵니다. (과도하게 할 경우 더스크 캡이 손상 될 수도 있습니다)

10. 앰프는 처음 켤 때 볼륨을 최저로 놓으시고, 적어도 1-2분 정도 후에 볼륨을 올려 사용하시면 고장을 줄여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열발산이 되도록 통풍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씩 좌우의 온도를 확인하시고 온도차가 심하게 날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이니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됩니다.

11. 십년이상 사용한 앰프는 건강 검진하듯이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특히 몇십년된 빈티지 기기는 당시의 오리지널 부품이 열화되거나 내부물질이 변질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부품이 나쁘면 다른 부품까지 망가 뜨립니다. 특히 커패시터가 문제가 생기면 스피커도 고장 납니다. 특히 콘덴서 (캐퍼시터)는 20년 넘으면 제 성능이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능 하시면 케이스를 열어 육안으로 부품의 변색, 누액 등을 확인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12. 기기간 연결케이블은 가능하면 전원선과 멀리 위치하고, 평행되게 하지 않고 십자로 교차 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닥에

놓이지 말고, 공중에 부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전원케이블에서 많은 노이즈나 방해 전파가 나옵니다. 부득이 하게 전원선과 만나는 경우 그 부분을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주면 차폐가 가능 합니다.

13. 요즘 나온 기기들은 상관 없는데, 구형 빈티지의 경우 전원의 극성을 맞추면 음질이 좋아 집니다. 오디오 극성 맞추기로 검색하면 방법이 나오는데, 테스트의 + 단자를 손으로 잡고, 기기의 그라운드 (대개 금속 몸체)에 - 단자를 대서 전압이 낮은 방향으로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14. 전기의 질이 중요 합니다. 냉장고 같은 모터 사용기구나 전열기기와는 가능하면 먼곳의 콘센트를 이용하시면 노이즈 유입에 조금 유리합니다. 아울러 저급한 파워 스트립은 사용하지 마시고, 빨간색 전원 표시등은 노이즈를 발생시키니 죽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오디오용 파워 분배기나 컨디셔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구매시 기기에 달려온 케이블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상급의 케이블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대략 시스템 전체 가격의 10% 정도를 케이블에 할애 하면 적당 합니다.

16. 케이블은 굵을수록 저음 재생에 유리하고, 은이 포함된 선재는 중,고역이 좋아 집니다. 주석 도금 선재는 약간의 잔향을 만들어 피곤한 음색을 중화 시킬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통해서도 음 튜닝이 가능 합니다. .

17. 기기마다 음의 성향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좋은 것, 부드럽고 음악적ニュアンス가 좋은 것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음장형, 후자를 음색형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기기들로 조합하면 단점이 두드러집니다. 서로 조화 되는 중용적인 조합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디지털 기기의 날카로움을 중화시키고자 진공관 프리를 사용하고, 소스와 프리앰프 케이블은 구리소재를 사용합니다. 빈티지 진공관 앰프는 오히려 반대의 매칭이 유리 합니다.

18. 오디오 딜러의 시청실을 유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딜러들은 시연을 위해 최상의 경우를 여러가지로 시험해 보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합니다. 유용한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대역의 Peak (과다)나 Deep (부족)이 있을 경우 보정을 해 주어야 소리가 좋아 집니다. 이것의 측정은 Pink Noise 를 재생하면서 스마트폰의 사운드 아날라이저 앱을 통해 간단하게나마 측정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더라도 보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즘은 달려 나오는 마이크를 통해 이러한 보정및 룸튜닝이 가능한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 NAD C658 이라는 디지털 스트리밍 DAC은 Dirac Live 라는 룸튜닝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간편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심히 확인하시어 문제점을 시정한다면 훨씬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